

기고

119구급차, 꼭 필요한 순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 119.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오·남용으로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진도소방서에서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자제해야...

단순 감기, 만성질환 관리, 정기 병원 이송 등 생명이 지장이 없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구급차가 중증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지므로,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응급현장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하는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구급대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최근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병원 선정에 대한 구급대원의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와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응급현장에서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한다.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비응급 시에는 119 상황실에서 상담 가능

생명이 위독하거나,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지만, 비응급환자의 경우 24시간 119상황실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약국안내·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두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된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해야 하겠다.

진도소방서 소방서장 김재철

아직 가지 않은 길(고은)

이제 다 왔다고 말하지 말자 천리만리였건만 그동안 걸어온 길보다 더 멀리 가야 할 길이 있다. 행어 날 저물어 하룻밤 잠든 집승으로 새우고 나면 더 멀리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동안의 친구였던 외로움일지라도 어찌 그것이 외로움뿐이었으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었고 아직 가지 않은 길 그것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모르는 세상이라라.

파오(고은) 선생의 명시 중에 '아직 가지 않은 길'이란 시가 있다. 이 시는 인생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인생길에는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상적인 길이 있고, 미래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 길임을 암시하는 시이다.

'아직 가지 않은 길'의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얼마 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했던 '대륙으로 가는 길'의 단테명이다. 대륙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길이다.

창립 취지는 남북이 통일이 되어 공동 번영의 길로 가는 길만이 글로벌세계 경제 발전에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시대적 과제와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적극 동참하여 한민족 미래의 길을 열어가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대륙으로 가는 길이 응비의 시대

자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존재한다. 비행기 가는 하늘길, 선박이 가는 바다길은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야 할 사람이 있듯이 '대륙으로 가는 길'에도 가야 할 때가 있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있다.

그동안 남북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자. 상호 이념 체제를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대립과 협력을 반복해 왔다. 냉전 체제 속에서는 남북이 대립했고, 남북 대화와 협력의 역사 속에서는 적십자사 물자교류, 남북공동성명,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민간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의 갈등으로 잠시 중단되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 대화 채널을 신속히 복구하려고 헌신의 힘을 쓰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개체는 대륙의 길로 가야 할 의무이다. 천 년 전 우리 조상이 자유롭게 다녔던 대륙의 그 길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된다. 어떠한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개척해야 한다. 창기즈칸의 명언 중에 "성(城)을 쌓은 자는 망하고, 길을 개척한 자는 흥(興)한다"라고 했

다. 자기중심적인 상대가 문을 닫으려고 고집하면 열도록 설득하고 분위기를 쇄신하여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1차 관문, 2차 관문을 넓혀 광활한 대륙으로 박찬 가슴으로 달려야 한다. 너도 달리고, 나도 달리고, 철마도 달려서 유럽과 소통하는 연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 한민족의 저력은 위대하다. 과거 외침을 받을 때 결사 항전하는 정신과 오늘날 과학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투혼, 끈기 있는 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이다. 우리의 과학 기술을 보라!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업, 초고속 인터넷과 IT 인프라 등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추월했다. 그뿐만 아니라, K-POP, 게임, 드라마 등 세계적으로 강한 존재감, 군사력 세계 5위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대륙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희망과 비전을 공유해야 하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미·중의 상호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 패권과 경제 안보에서 유리

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둘째, 핵을 보유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글로벌 원료 공급망에 있어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물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넷째, 외교적 상호 이익을 찾아 대응할 때 대륙으로 가는 길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대륙으로 가는 길에는 실크로드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길이다. 그 길에서 둔황의 역사 숨결을 찾고, 글로벌 경제를 찾고, 지리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기술까지 국경을 넘어 다차원적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다.

이 길을 가려면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저력과 지혜의 총화로 경제를 동원하고, 상대방을 포용하며, 부족한 부분은 채워간다면 그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다. 이념으로 또는 정쟁적으로 적대시하면 오히려 역효과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한반도는 불통의 지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넘어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신뢰로 1차 관문인 남북의 변방을 뚫어야 한다. 그것이 뚫어질 때 우리는 멀리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해야 한다. 동참하면 할수록 길은 더 넓어져 응비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음력 10월 14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sign includes a small illustration and a short paragraph of advice or prediction.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office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